

'전북 직업교육의 모든 것'

도교육청, 10일부터 이틀간 '직업교육 박람회'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서 학과 탐색·취업 정보·대학 진로·채용설명회 등 8개 세부 프로그램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0~11일 이틀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전시관에서 2023 전라북도교육청 전북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직업교육 비전 제시를 통해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직업교육활동 체험을 통해 중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AI온라인 면접관·직업심리관·취업준비컨설팅관을 통해 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실천 대비 능력을 높여준다.

10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학과탐색 △취업정보 △대학진로 △미래교육체험 △토크콘서트 △지역

이전 공공기관 및 금융권 채용설명회 △직업계고 설명회 등 8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학과탐색 ZONE에서는 도내 30개 직업계고의 입학정보와 교육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계열별 진학상담을 통해 박람회장을 찾은 중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계열 및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취업정보 ZONE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자리다. 도내 우수기업의 채용 정보를 안내하고, AI온라인 면접관·직업심리관·취업준비컨설팅관을 통해 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실천 대비 능력을 높여준다.

이와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역 이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와 금융권

채용설명회로 채용정보안내와 직업계고 출신으로 취업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토크콘서트도 마련했다.

이 외에 도내 직업계고를 이해하는 직업교육 퀴즈이벤트도 현장에서 실시하고 VR·드론·3D·로봇 등 미래 과학 기술을 체험하는 미래교육체험 ZONE도 눈길을 끈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미래신산업분야의 기술인재 양성을 직업교육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전북직업교육의 우수성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직업교육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및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영 도지사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전북특별법 개정 노력 경주'

전북대 양오봉 총장, 특자도 국민지원위원장 위촉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에 따르면 양 총장은 지난 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및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영 도지사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인문 학계 등에서 전라북도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출향인사 등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됐다.

현재 전북은 655개 특례를 발굴해 정

부개정안을 마련, 이를 반영하기 위해 부처 소문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특례들에는 새로운 전북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들이 담겼다.

한편, 국민지원위원회는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만들기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범도민의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은 양오봉 총장은 "전북도민들의 염원으로 맞게 될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운 전북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17일 강원국 작가 초청 특강



우석(총장 남전현)은 오는 17일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인 강원국 작가를 초청해 '어른스럽게 말하고 글쓰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청특강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기술융합 시대에 필요한 글쓰기와 말하기의 역량 강화와 함께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되는 이날 특강에서 강원국 작가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 시절을 회고하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 잘하는 방법과 글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초청특강에는 재학생 및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석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063-290-173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GKS 외국인 우수자비 장학생 선발

전주비전대학교(총장직무대행 우병훈)는 2023년 GKS 외국인 우수자비 장학생에 미얀마 유학생 6명과 베트남 유학생 1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외국인 우수자비 장학 사업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국의 유학생들에게 교육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 대학에서 우수한 유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개인당 연간 500만원을 교육활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GKS 외국인 우수자비 장학생 선발에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전국 대학으로부터 추천 받은 지원자 중에서 학업성적, TOHK 등을 평가해 최종 250명을 선발했다.

잔티꾸엔(미용건강과 2년) 학생은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에 입학해 미용사 과정평가형 국가자격증을 취득했다"며 "유학생 통역 및 홍보도 우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행복한 유학생활동을 하고 있는 경험들이 이번 장학생 도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제교류원장 이효숙(미용건강과) 교수는 "이번에 GKS 외국인 우수자비 장학생으로 선발된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정부 장학금 수혜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유학생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신설 유치원 교명 선택해주세요'

'가칭' 전주문정유치원·'가칭' 전주여의유치원 등 전주교육지원청, 11일까지 교명 제정 선호도 조사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만수)은 2024학년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 유치원(가칭)전주문정유치원과(가칭)전주여의유치원의 교명 제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8~11일까지다.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는 공모된 교명 중 선호도 조사를 위해 부르기 쉽고 친근한 어감 및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교명을 심의 기준으로 신설 유치원당 3개 후보 교명을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가칭)전주문정유치원은 전주문정유치원·전주정담(正談)유치원·전주꽃심유치원 3개가, (가칭)전주여의유치원은 전주여의유치

원·전주늘품유치원·전주다슬유치원 등 3개가 후보에 올랐다.

이번 선호도 조사에 참여를 원하는 전북도민은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jbj.kr>) 전자민원창구 설문조사에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참여 가능하다.

선호도 조사를 반영한 교명안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jbj.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행정지원과 학생배치팀(270-6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대학교는 지난 4일 예술관 JJ아트홀에서 개교 59주년 기념 '글로벌대학 혁신 선포식'을 연 가운데 박진배 총장 등이 글로벌대학 혁신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글로벌대학30' 혁신 선포

전주대, 개교 59주년 맞아... 사업추진 현황 공유·결의 다짐

전주대학교는 지난 4일 예술관 JJ아트홀에서 개교 59주년 기념 '글로벌대학 혁신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학 구성원들과 '글로벌대학30'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결의를 다졌다.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2023년 10개 내외, 2028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포식에서는 학교법인 신동아학

원 이사장, 전주대학교 총장, 총동문회장, 교수회장, 직원회장, 학생회장 등이 공동으로 글로벌대학 혁신 선언문을 낭독하며 전주대의 '글로벌대학 30' 추진 의지를 알렸다.

이에 따르면 홍성덕 대외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선포식은 '학생 성과와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전주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와 역량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자리였다.

선포식 외에도 연공상, 우수교육자상, 수퍼스타직원상, 공로상, 표창 및 감사패 수여가 진행. 신학철총장과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한 (주)하림 대표이사 정호석, 비나텍(주) 대표이사 성도경, (주)영성케미칼 대표이사 김용현 등에 감사패가 수여됐다.

박진배 총장은 "성공적인 글로벌대학 선정 추진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의지와 열정을 결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 모델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산업재해 대응능력 키운다

도교육청, 재해 발생 관련기록 보존 등 업무처리 요령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요령을 소속 기관 및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재해 적용 대상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해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산업재해 지연 보고,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

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재해 업무처리 요령은 △산업재해 적용 대상 △재해 유형별 업무처리 주체 및 수행 내용 △산업재해 미보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산업재해 발생 관련 기록 보존 등이다.

특히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적용 대상, 제출 서류, 관할 지역 고용노동지청, 제출 기한 등을 상세하게 담았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고위직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전주·정읍·원주 등 이달 중 도내 8개 지역서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위직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학교 성교육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함이다.

연수 대상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장을 비롯해 교감, 행정실장, 교무부장 등 총 2,940여 명이다. 올해부터는 교무부장을 연수 대상에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적극 참여해 성인지감수성 증진과 더불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원청이 연계해 지역별·대상별로 분산·운영한다.

5월에는 전주·정읍·김제·원주·진안·장수·임실·부안지역에서 연수가 진행되며, 도교육청에서 전문강사 및 연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이시기 문예체전강과장은 "교육주체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인지감수성이 필요하다"면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적극 참여해 성인지감수성 증진과 더불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교 틈새공간 물품비 지원 추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들의 행복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학교 틈새공간 물품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 틈새공간은 교실·연구실·특별실이 아닌 복도, 현관, 휴메이스, 테라스, 계단과 계단 사이 등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은 여유로운 공간을 말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의 신청을 받아 150개교를 선정, 교당 300만원 내

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 편히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과 간에 대화를 나누는 등 원과 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학생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학교 선정 시에는 학생수, 학교 규모, 예산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특히 학생회 회의를 통한 필요 물품 선정 및 예산계획 수립 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회 회의록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총, '2023 전북청소년 미래교육 창의나래 페스티벌'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중)는 5일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2023 전북청소년 미래교육 창의나래 페스티벌'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혁신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과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IoT, 드론 메타버스 등 직접적인 미래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27개 운영됐다. 또 이동형 VR버스, 수학 보드게임 놀이 등과 같이 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도 진행됐다.

특히 정두희 교수(한대대학교)가 'AI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전북교총이 어린이날을 기념해 정보 소외 계층 학생들을 위해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구성됐다.

이기중 회장은 "창의나래 페스티벌은 건강하게 자라나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라며 "창의나래 페스티벌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소광호 원광대 교수 건축학회 춘계학술 학술상

원광대학교는 소광호 교수(건축공학과)가 대한건축학회 2023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광호 교수는 건설현장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시공, 최신건축자산 견적실무, 리모델링사업 기획·설계, 리모델링 공사 구조시공 등에서 실무자 몸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 건설현장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전공서적을 집필해 건축시공 분야의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다수의 독창적인 연구 논문과 저서를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뉴시스

